

나주시, 전남 유일 1인 10만원 민생 경제회복 지원금

소상공인·시민 생활 안정 도모 지역 상품권 지급...소비 기한 4월 24일~2월7일까지 온라인 신청...모바일·카드, 지류형 상품권 택일

나주시가 전남 지역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1인당 10만원의 민생 경제회복 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국내 경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액을 모바일·카드, 지류형 나주시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민생 경제회복 지원금은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을 받는다. 나주시사랑카드 앱 '지역상품권 chak'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시청 누리집(온라인 신청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지류형 상품권은 다음 달 1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28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11만7000여명으로 지원금 신청일 이전 사망자와 전출자는 제외된다.

상품권 소비 기한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4월 30일까지 넉넉하게 설정했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 '정책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과 함께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190억원 규모의 35개 사업을 새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신속한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조례안과 예산안 통과에 속속결 협력해 준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녹이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윤병태(오른쪽 두번째) 나주시장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화순 급경사지 3곳 '붕괴 위험' 걱정 끝

국비 18억 확보...이양면 용반·옥리 지구, 한천면 반곡지구 정비



이양면 용반지구 급경사지 모습.

화순군이 붕괴위험이 큰 급경사지 3곳을 정비한다.

화순군은 이양면 용반·옥리 지구, 한천면 반곡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을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위험 요인별 맞춤형으로 급경사지를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다.

화순군은 이들 지역이 재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전남도

와 꾸준히 협의했다.

정비 대상 지역은 2016년 5월부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돼 화순군이 관리하던 곳으로 작년 말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올해 착공한다.

총사업비 36억원 가운데 국비 18억원을 마련했다.

이양면 용반·옥리 지구는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556m를, 한천면 반곡지구는 사업비 22억원을 들여 626m의 위험 사면을 정비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군 "골목상권 살리기 함께 해요"

공직자들, 식당·카페 이용 챌린지...지역상품권 15% 할인 홍보도



김한중 장성군수와 장성군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공직자들이 지역경제를 되살리려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를 시작했다.

장성군 공직자들이 직접 기획한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는 장성지역 상가를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남겨 다른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성사랑상품권 15% 할인도 함께 홍보하고 있다.

시작은 김한중 장성군수가 끝났다. 지난 17일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마친 김 군수는 인근 카페에서 챌린지 인증샷을 남겼다.

술선수범하는 군수의 모습을 군청과 읍면 공직자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골목상권에 조금씩

활기가 돌고 있다.

한 식당 업주는 "수익을 떠나 군 공무원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고자 애쓰는 마음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장성군의 지역상가 이용 챌린지는 2월까지 이어진다. 장성군은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단체와 기업 등 지역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장성경제 회복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김용희 기자 yonghi@

강진서 태어난 아이 6세까지 매월 60만원

전남도와 육아수당 연계 시행...상반기 조례 제정·추경 편성

강진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본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출생기본수당과 함께 이번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도 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10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기본수당은 전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이면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출생아는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와 보호자(부모 모두)가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0세는 강진군 육아수당을 기존 60만원 지급하고, 1-6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육아수당 50만원 등 총 6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7-18세는 도 출생수당 10만원(현금)과 강진군 출생수당 10만원(모바일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강진군육아수당은 10만원이 감액돼 지급된다.

강진군은 출생기본수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

해 올해 상반기에 조례 제정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기존 육아수당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진군 육아수당은 2022년 10월 시행 이후 12년간의 출산율 감소 반등을 견인했다. 2023년 출생아증가율 65.6%,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2024년 출생아는 170명으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김은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앞으로 양육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올 112억 투입 '명품 한우' 육성

한우 개량·사양 관리 등 7개 사업 농가 유전체 검사 전액 지원 등

전남에서 고등 등록우(牛)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진군이 한우산업 육성에 나선다.

강진군은 올해 총 112억원 규모 한우산업 분야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주로 한우개량, 사양관리, 품질향상, 마케팅, 조사료, 경영안정 및 기타 등 7개 단위 사업에 걸쳐 43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8번째 시행 중인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작년 대비 사업비 51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체계적인 한우 개량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한우농가에 유전체 검사(컨설팅) 비용을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저능력우 조기 도태 및 우량암소 육성·보존으로 한우 개량을 가속할 방침이다.

고등 등록우는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개체를 의미한다.

강진군은 현재 1031농가가 3만9750두를 사육



강진원(왼쪽 두번째) 강진군수가 우시장을 찾아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197두의 고등 등록우를 보유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농가 소득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취약계층 문화생활 독려

장흥군, 1인 14만원 문화이용권

장흥군은 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6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연 1회, 14만 원을 문화누리카드로 지급한다.

공연·영화·도서·음반·스포츠 관람 등 문화·체육 분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가능 인원은 3492명으로 발급 기한은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 달 3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누리집·모바일 앱·ARS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중소기업 대기 배출 설비 지원

4·5종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 부착 등 소요 비용의 90%

함평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환경시설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억5549만원의 시설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연료전환(저녹스버너 부착) 노후 방지시설 개선 사업이며,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대기환경정보전반 시행령이 개정돼 기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6월30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해당 시설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기한은 2월7일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